

안드레아스 에릭슨

학교재 《하이 앤 로우》

학교재청담 《인-비트윈스》



설악산

Seoraksan

2019

캔버스에 유채, 아크릴릭, 템페라

130x80cm

Photo©Studio Andreas Eriksson

전시개요

전 시 명 : 안드레아스 에릭슨

학교재 《하이 앤 로우》

학교재청담 《인-비트윈스》

전시기간 : 2019년 9월 20일(금) - 11월 3일(일)

전시장소 : 학교재 (본관), 학교재청담

문 의 : 학교재 02-720-1524~6

학교재청담 02-3448-4575~6

출 품 작 : 42 점

학교재 27 점 (회화 6 점, 조각 15 점, 판화 5 점, 태피스트리 1 점)

학교재청담 15 점 (회화 15 점)

담 당

학교재 박미란 miran@hakgojae.com

학교재청담 이지선 jen.lee@hakgojae.com

보도자료

www.webhard.co.kr (ID: hakgojaeart, PW: guest)

보도자료 폴더 내 20190920-20191103_안드레아스 에릭슨

1. 전시 개요

학교재와 학교재청담은 2019년 9월 20일(금)부터 11월 3일(일)까지 안드레아스 에릭슨(Andreas Eriksson, b. 1975, 스웨덴 비외르세터) 개인전을 연다. 안드레아스 에릭슨은 제54회 베니스 비엔날레 북유럽관 대표 작가다. 당시 나무 줄기를 그린 대형 회화와 조각 등 다양한 작품으로 세계인의 호응을 이끌어 냈다. 이번 전시는 안드레아스 에릭슨이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여는 개인전이다. 학교재는 《하이 앤 로우》라는 주제 아래 회화와 조각, 판화, 태피스트리를 망라해 총 27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학교재청담은 《인-비트윈스》라는 주제로 15점의 회화 연작을 집중 조명한다.

2. 전시 주제

안드레아스 에릭슨의 아시아 첫 개인전, 학교재와 학교재청담 공동 개최

이번 전시는 안드레아스 에릭슨의 아시아 첫 개인전이다. 학교재와 학교재청담이 공동으로 개최한다. 학교재 본관은 《하이 앤 로우》라는 주제로 전시를 연다. 작가의 폭넓은 작품세계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자리다. <세마포어 지리산>(2019), <설악산>(2019), <한>(2019) 등 한국의 강산 이름을 붙인 대형 회화 연작을 선보여 의미가 크다. 수공예로 제작한 대형 태피스트리 <바이젠시 no6>(2019)도 출품한다. 2015년부터 지속해온 직조 작업을 충실하게 이어가는 면모다. 실크스크린, 에칭 등 다양한 판화 작품과 제54회 베니스 비엔날레에 일부 출품했던 청동 조각 연작을 포함해 전시 구성이 다채롭다. 학교재청담에서는 《인-비트윈스》라는 주제로 소품 회화 연작 <덧없는> 15점을 전시한다. 형상과 여백이 캔버스 안팎으로 균형을 이루며 특유의 정서를 표출한다.

대자연에서 발견한 보편적 진리 - 음양의 조화와 우연의 미학

안드레아스 에릭슨은 2000년대 초부터 스웨덴 북부 시네쿨레(Kinneulle) 산에 머물기 시작했다. 매일의 일상에서 마주하는 소소한 사건과 현상, 주변을 둘러싼 자연 세계가 작업의 기반이 됐다. 안드레아스 에릭슨의 작업은 광범위하다. 회화에 기초하여 조각, 판화, 직조, 종이 작업 등으로 작업을 확장한다. 구상과 추상의 경계를 유연하게 넘나들며 절묘한 미감을 이끌어낸다. 화면은 주로 정적이고 정제된 표현으로 드러난다. 작업이 내포한 시적 서사와 숨은 의미가 지속적인 여운을 선사한다. 재료와 표현이 다채롭지만 모든 작업이 개념적으로 긴밀한 연관성을 띤다.

안드레아스 에릭슨의 화면은 빛과 어둠, 가벼움과 무거움, 실재와 환영의 양면성을 포용한다. 스칸디나비아 문화에 뿌리를 둔 작업이지만, 음양의 조화를 강조하는 동양 철학과 맞닿는 데가 있다. 작가는 자연을 중립의 세계로 인식한다. 매우 정확한 동시에 우연성을 포용하는 세계다. 작업 과정에서도 우연성을 자주 활용한다. 얼룩과 자국의 활용이 한 예다. 학교재 본관에 전시한 22 점의 동판화 연작 <러비아>(2016)에서 그 특징이 돋보인다. 꿀을 섞은 산을 동판 위에 붓고 러비아 전기 선풍기를 이용해 건조한 뒤 그 흔적을 부식시켰다. 추상적이고 시적인 흑백의 형상이 다양한 명도로 드러난다.

3. 작품 소개

대표작품



세마포어 지리산

Semaphore Jirisan

2019

캔버스에 유채, 아크릴릭, 템페라
195x240cm

Photo©Studio Andreas Eriksson

안드레아스 에릭슨에게 회화란 주제이자 도구다. 다양한 매체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이며, 상징적, 개념적 요소의 원천이다. 안드레아스 에릭슨의 회화는 추상적이고도 견고하다. 대형 회화는 하늘에서 내려다본 풍경과 같은 화면을 선보인다. 유연한 곡선의 움직임이 지도의 등고선을 연상시킨다. 학고재 본관에서 안드레아스 에릭슨의 대형 회화를 만나볼 수 있다. 한국의 강산 이름을 붙인 연작이다. 그의 추상화는 자연 풍경의 색채와 형태를 참조하지만, 실제 풍경을 묘사한 것은 아니다. <세마포어 지리산>(2019), <세마포어 한라산>(2019), <세마포어 가리왕산>(2019) 등 '세마포어' 연작은 모두 하나의 드로잉에서 시작한 회화다. 같은 크기와 형식을 띤 이유다. 각 회화들이 서로를 참조하고, 긴밀한 관계를 이루며 발전해 왔다.



덧없는 #16

Ephemeral #16

2019

판넬에 씌운 캔버스에 유채,
아크릴릭, 템페라

38x33cm

Photo©Studio Andreas Eriksson

학고재청담에서는 신작 소형 회화 <덧없는> 15점을 선보인다. 전시 서문을 쓴 사라 위커는 안드레아스 에릭슨의 소형 회화가 "정원 안에 자연을 길들여둔 것 같다"고 했다. 작은 화면 위에서 일어나는 색채와 형태의 율동이 탁월하다. 동일한 크기의 연작을 함께 전시해 표현의 변주가 돋보인다.



바이젠시 no6

Weissensee no6

2019

리넨

240x200cm

Photo©Studio Andreas Eriksson

안드레아스 에릭슨의 <바이젠시 no6>(2019)는 미가공 리넨 섬유를 수공으로 직조한 태피스트리다. 풍경은 작업의 주제이자 재료가 된다. 에릭슨은 스웨덴의 여러 지방에서 실을 수집한다. 저마다의 색조가 지역과 역사의 미묘한 차이를 나타낸다. 일부 리넨은 현대의 것이지만, 100년 이상 되었을 법한 것들도 있다. 현지에서 생산되는 실로 천을 직조하며 여러 세대 가업을 이어온 이로부터 얻은 실이다.

에릭슨은 염색이나 보존처리가 되지 않은 리넨을 재료로 쓴다. 흙과 식물이 자란 시기, 지역과 기후에 따라 자연스러운 색이 올라온다. 장소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작품의 제목에 지역명을 드러낸다. 에릭슨은 유화로부터 직조의 지침이 되는 무늬로 나아가는 여러

이미지 사용 시 아래 저작권 표시 부탁드립니다.

All images: ©Andreas Eriksson. Courtesy the artist and neugerriemschneider, Berlin

갈래의 여정을 '지도화'하는 일을 통해 화면을 구성해 나간다. 선사시대부터 이어진 방식대로 낱알의 씨실은 손에 의해 놓이고 정돈되며, 압력과 질감의 미묘한 울동을 가능케 한다. 섬세하고 노동 집약적인 과정이다.



미완의 회화를 위한 스케치

Sketch for unfinished painting

2017

플라스틱에 실크스크린

73.7x103.7cm x8

Photo©Jens Ziehe, Berlin

학고재 본관 안쪽 방에 들어서면 <미완의 회화를 위한 스케치>(2017)를 포함한 실크스크린 연작이 시선을 압도한다. 다수의 패널로 이루어진 단색 판화다. 작업실의 커다란 창으로부터 작품의 격자 형태를 차용했다. 공간의 외부와 내부를 암시적으로 연결 지으려는 시도다. 최근의 추상 회화에서 드러나는 등고선을 추출해 지도와 같은 이미지를 구성했다. 선과 형태, 화면 구성에 대한 미적 탐구의 일환이다.



내용은 언뜻 보인다 85

Content is a Glimpse 85

2019

청동 주조

32x7x13cm

Photo©Studio Andreas Eriksson

안드레아스 에릭슨의 <내용은 언뜻 보인다 85>(2019)는 청동 주조로 만든 가녀린 조각이다. 자연과 문명, 안과 밖의 관계에 대한 사유에 기반해 제작했다. 스웨덴의 깊은 시골에 위치한 작업실 창문이 주변 풍경을 반사해 시각적 환영을 만들었고, 날아가던 새들이 부딪혀 사고를 당했다. 안드레아스 에릭슨은 표면과 환영, 내부와 외부의 경계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혔다. 환영을 현실로 믿은 새의 신뢰에 감동하여 같은 운명을 겪은 여러 새들의 모습을 주조했다. 청동을 붓는 거푸집의 통로 부분을 남겨둠으로써 각각의 새들이 앉을 수 있는 나뭇가지를 형상화했다. 새로운 삶을 부여한 것이다.

4. 작가 소개

안드레아스 에릭슨은 1975 년 스웨덴 비외르세터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 어머니를 따라 오슬로 몽크 박물관에 방문한 이후 미술에 관심을 갖게 됐다. 1998 년에 스웨덴 왕립예술원 스톡홀름 미술대학교¹를 졸업한 후 베를린에 건너갔다. 다양한 작가들과 교류하며 작업에 몰두했으나 2000 년대 초 전자파에 통증을 느끼는 병을 얻어 귀향했다. 스웨덴 북부 메델플라나 인근의 시네쿨레 산 숲 속에 거처를 마련하여 현재까지 살고 있다.

2001 년 스톡홀름에서의 첫 개인전을 시작으로 보니어스 콘스트할(스톡홀름), 레이카비크 아트 뮤지엄(레이카비크), 루드비히 재단 현대미술관(mumok)(빈), 트론헤임 콘스트뮤지엄(트론헤임, 노르웨이) 등에서 다수의 개인전을 개최했다. 2011 년, 제 54 회 베니스비엔날레 북유럽관 대표 작가로 선정되었다. 파리 시립 근대 미술관(파리), 스톡홀름 현대미술관(스톡홀름), 오슬로 국립미술관(오슬로) 등 다수의 기관에서 열린 단체전에 참여하기도 했다. 2007 년 아트 바젤 발로아즈 예술상(바젤, 스위스), 2015 년 스텐 에이 올슨 재단상(예테보리, 스웨덴)을 수상했다. 폰피두 센터(파리), 루드비히 재단 현대미술관(mumok)(빈), 예테보리 미술관(예테보리, 스웨덴) 등에서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5. 전시 서문

*서문에서 4 단어 이상 발췌 시, 글쓴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갤러리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예술이 된 풍경

사라 워커

안드레아스 에릭슨과 친구가 된 것은 한 채석장에서였다. 지역색에 따라 다양한 빛깔을 띤 석회석이 있는 곳이다. 채석장에서 보낸 날들은 따뜻했다. 우리는 에릭슨의 집 앞에 낮은 돌담을 짓기 위해서 큰 석판을 잘게 부싷다. 채석장은 광활했으며 색채의 변주가 아름다웠다. 그곳을 운영하던 두 형제에 대한 기억이 선명하게 떠오른다. 늘 먼지에 뒤덮여, 마치 두 개의 고전 조각상처럼 보였다. 진정 인상 깊었던 것은 형제의 영롱한 담청색 눈이었다. 그로부터 나는 안드레아스 에릭슨의 회화를 연상한다. 불현듯 터져 나오는 찬란한 색이 차분한 연갈색 색조와 충돌하는 화면. 이러한 대비는 완전히 새로운 색채를 창조해낸다. 시각적 환영일 뿐일지라도 말이다.

¹ Royal College of Arts, Stockholm

이 글에 '예술이 된 풍경'이라는 제목을 붙였다. 나는 안드레아스 에릭슨에 대한 글을 시작하며 케네스 클라크의 1949년 저서명을 차용한 것에 유감이 없다. (길지 않은 글이지만 고전의 참조가 더 등장할 예정이다.) 에릭슨의 작업에는 세월을 뛰어넘는 무언가가 있다.

우리는 우리가 만들지 않은 것들에 둘러싸여 있다. 클라크의 문장을 옮겨 쓰자면, 우리와 다른 생명과 체계, 그러니까 구름과 나무의 형상이나 색채에 의해서다. 이러한 자연 경관을 통해 우리는 자연과 예술, 아름다움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힌다. 안드레아스 에릭슨은 무엇을 그리는 것일까?

화가 장 밥티스트 카미유 코로는 자신의 작은 풍경화 몇 점에 <에뛰드>라는 이름을 붙였다. 쇼팽의 음악적 에뛰드와 연관한 것일 테다. 에릭슨의 소형 회화는 코로가 그랬듯 회화에 대한 심미적 접근 방식이 주는 자유에 대한 자각을 드러낸다. 코로는 예술의 사실성에 대한 고찰을 포기하는 대신 감각을 전달할 수 있었다. 에릭슨의 회화는 크기에 상관없이 마치 아무 곳도 아닌 데에서 시작해 아무 곳도 아닌 데에서 끝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견고하다. 소형 회화의 한정된 화면은 정원 안에 자연을 길들여둔 것 같다. 대형 회화는 공중에서 내려다본 듯한 화면을 선보인다. 확장된 관점이며, 미지의 무언가에 대한 지도다. 회화를 보는 일이 꼭 정답에 대한 추측을 동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작가의 의도는 모든 이가 볼 수 있도록 화면 위에 자리해 있다. 바라보자. 이 특별한 회화적 언어와 친밀해지자.

이 글을 쓰며, 우리 여름 가옥의 입구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지붕 아래로 분주하게 집을 짓는 두 마리의 새를 본다. 사람이 만든 구조물이 등지를 트는 새들에게 목적의식을 부여했다. 새들의 건축이 건물의 틈새를 훑내 낸다. 다만, 안전은 환상일 뿐이다. 우리는 매일 수차례 집을 드나들고 그때마다 어미 새는 급히 달아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지는 멋지게 지어지고 있다. 마치 사람이 가장 소박하고 작은 조각을 만들고자 노력한 결과물 같다. 우리는 정말이지 우리가 만들지 않은 것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다. 새들도 그렇다. 안드레아스 에릭슨의 새 조각은 등지를 트는 새들에 관한 작업이다. 새이자 곧 조각인 이들은 에릭슨의 작업실 유리 문과 창문에 충돌해 생을 마감했다. 유리 위에 반사된 공중의 환영이 수많은 새들을 죽도록 만들었다. 창문은 내부의 채광을 위한 것이고, 작업실이 산골에 위치하다 보니 안팎의 경관을 최소한으로 차단하도록 설계한 탓이다. 이 청동 새들에 자연과 문명의 관계가 내재해 있다. 새들은 운명을 다했고, 에릭슨은 그들을 고전적인 청동 조각으로 부활시켰다. 순교자를 기리듯이.

존 러스킨이 말하길 "구성이란 곧 불균등한 것들을 나열하는 일"이라고 했다. 에릭슨의 두더지 둔덕 연작은 불균등에 관한 감각을 일깨운다. 실제 두더지 둔덕을 모아 석고로 뜨고 청동으로 주조했다. 승리와 패배를 동시에 나타내는 조그만 산이다. 잔디밭에서 두더지는 늘 승자다. 두더지가 판 복잡한

이미지 사용 시 아래 저작권 표시 부탁 드립니다.

All images: ©Andreas Eriksson. Courtesy the artist and neugerriemschneider, Berlin

구조의 지하 땅굴은 굽이치는 강줄기를 연상시킨다. 두더지가 땅굴을 파듯, 에릭슨은 회화의 화면 위를 유랑한다. 두더지 둔덕 조각을 완고한 고집, 즉 지속적인 예술 창작의 필요를 형상화한 기념비로서 해석할 수도 있다. 바닥에 놓인 두더지 둔덕들은 원본과는 다른 개념을 함축한다. 정원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지만, 작가에 의해 새로운 정체성을 획득한다. 갤러리 공간에서 두더지의 노동은 저항적 오브제로 재해석된다. 흙에게 영구적인 맥락을 부여한 것이다.

에릭슨은 스스로의 설치 작업들을 굳이 구분 지으려 하지 않는다. 매체의 변주는 한 공간에 다수의 서사가 공존한다는 믿음을 주기 위한 요소가 아니다. 오히려 반대에 가깝다. 에릭슨은 태피스트리와 두더지 둔덕 조각, 회화와 판화의 재료적 상이함을 수용한다. 그리고, 개념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 이들이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도록 유도한다. 그의 작업은 모두 같은 맥락으로 통한다. 삶과 예술의 무게획성에 대한 것이며, 모든 것이 빛과 어둠의 관계, 때로는 우연으로 연결되어 있음에 관한 것이다. 절묘한 미감을 조율하고, 재편성하는 작가의 역할이 태피스트리 작업에서 두드러진다. 이 복잡한 작업은 형태, 지형, 그리고 단번에 섬세하고도 투박한 모든 것이 될 수 있을 법한 구조적 양상을 포괄적으로 드러낸다. 재료 자체로서 리넨은 전통 회화 캔버스와 직접적인 연관을 띤다. 한편, 태피스트리 재료로서의 리넨은 표현의 지지체로 남아 침묵하기보다 스스로 목소리를 낸다. 대형 회화들은 은밀한 회화적 실험의 과정을 거쳐 왔다. 그러나 회화 연작의 시작부터 끝까지 지속적으로 사용된 것은 단 하나의 드로잉이다. 각각의 회화에서 실재의 형상은 축소된다. 새로움이 탄생한다. 새들의 죽음마저도 새로운 무언가를 낳았다. 새롭고도 영원한 것 말이다. 에릭슨은 스스로 터득하고 발전시켜온 예술 언어를 사용하는 동시에 그것을 면밀히 탐구한다. 이 실재하는, 지속적인 연대를 살아가는 다양한 존재들 사이의 연관성과 새로운 관계들을 발견하기 위하여, 그의 두 눈은 활짝 열려 있다.

6. 작가 약력

안드레아스 에릭슨

1975 스웨덴 비외르세터 출생
1993-98 스웨덴 왕립예술원 스톡홀름 미술대학교 졸업
스웨덴 메델플라나에서 거주 및 작업

개인전

2019 하이 앤 로우, 학교재, 서울
인-비트윈스, 학교재청담, 서울
컷아웃, 시행착오와 실들, 브라운스펠더, 쾰른, 독일

-
- 2018 학교 과제, 스티븐 프리드먼 갤러리, 런던
- 2017 작업 진행 중, 스케치 미술관, 룬드, 스웨덴
맵핑, 노이게림슈나이더, 베를린
- 2016 빨강, 시끄러운, 비뿔어진, 고슴도치, 스티븐 프리드먼 갤러리, 런던
- 2015 민더빌더, 갤러리 리스, 스톡홀름
침식, 발로아즈 아트 포럼, 바젤, 스위스
개와 산책하기 - 베틀에 앉아서, 조머 & 콜, 베를린
- 2014 라운드어바웃, 보니어스 콘스트할, 스톡홀름
라운드어바웃, 트론헤임 콘스트뮤지엄, 트론헤임, 노르웨이
라운드어바웃, 파스쿠 아트 센터, 빌, 스위스
라운드어바웃, 레이카비크 아트 뮤지엄, 레이카비크
통나무, 조머 & 콜, 베를린
공명, 갤러리 수잔 오테센, 코펜하겐
빛, 갤러리 아른스테트, 보스타드, 스웨덴
- 2013 회상, 브로어 호스의 집, 읍살라, 스웨덴
난점, 리드쇠핑 콘스트할, 리드쇠핑, 스웨덴
풍경 (카르발에게), 갤러리 리스, 오슬로
우연한 맵핑, 스티븐 프리드먼 갤러리, 런던
회상, 갤러리 리스, 오슬로
이비라푸에라의 첫눈, 조머 & 콜, 베를린
공중부양. 안드레아스 에릭슨과 미셸 마제루스, 미셸 마제루스 에스테이트, 베를린
- 2012 탐험, 갤러리 리스, 오슬로
- 2011 제 54 회 베니스비엔날레 (북유럽관), 자르디니 디 카스텔로, 베니스, 이탈리아
인비트윈스, 조머 & 콜, 베를린
무제 그리고 다른 활동들, 갤러리 리스, 스톡홀름
- 2010 갤러리 박스, 예테보리, 스웨덴
하이, 로우 & 인 비트윈, 갤러리 수잔 오테센, 코펜하겐
- 2009 아른스테트 & 쿨그렌, 외스트라 카르프, 스웨덴
아무런 단서도 없다, 조머 & 콜, 베를린
믿음의 고층에 대한 우회적 접근, 갤러리 리스, 오슬로
- 2008 내용은 언뜻 보인다, 갤러리 콘라드, 뒤셀도르프, 독일
개와 산책하기 - 소파에 누워서, 루드비히 재단 현대미술관(mumok), 빈
- 2007 산책, 갤러리 앤더슨/샌드스트롬, 우메오, 스웨덴
- 2006 코시모, 세브데 콘스트할, 세브데, 스웨덴
갤러리 리스, 오슬로
- 2005 익스포지션 - 페리페티, 갤러리 플라치, 스톡홀름
360, 트론헤임 콘스트뮤지엄, 트론헤임, 노르웨이
- 2004 360, 갤러리 앤더슨/샌드스트롬, 우메오, 스웨덴
익스포지션 - 페리페티, 갤러리 매그너스 아클룬드, 말뫼, 스웨덴
익스포지션 - 페리페티, 크리스티안스타드 콘스트뮤지엄, 크리스티안스타드, 스웨덴
360, 베스테로스 콘스트뮤지엄, 베스테로스, 스웨덴
익스포지션 - 페리페티, 갤러리 리스, 오슬로

- 360, 북유럽 수채화 박물관, 스키르함, 스웨덴
- 2003 두 번째, 갤러리 플래치, 스톡홀름
인터스펙티브, 갤러리 베거비, 코펜하겐
- 2001 스크린세이버, 스테이튼스 콘스트라즈 갤러리, 스톡홀름
- 단체전**
- 2019 나무, 금속, 식물, 색채, 유리, 점토, 돌, 노이게림슈나이더, 베를린
더블 게임 - 프락 오베르뉴 컬렉션, 오리악 고고미술 박물관, 오리악, 프랑스
- 2018 신 물질만능주의, 보니어스 콘스트할, 스톡홀름
회화 비엔날레 - 풍경화, 로저 라빌 미술관, 메첼렌, 벨기에
원숭이와 폭포 - 우리 기후의 모습, 사라 힐덴 미술관, 탐페레, 핀란드
신작, 갤러리 수잔 오테센, 코펜하겐
멀티플, 스티븐 프리드먼 갤러리, 런던
자연 - 집 & 작업실, 요하네스 라센 박물관, 케르테미네, 덴마크
우거진 선들, 환영의 형상, 갤러리 이사, 뭄바이, 인도
- 2017 여름날들, 셸라치우스 박물관 괴스타, 멘테, 핀란드
보로스 컬렉션/벙커 베를린 #3, 잠롱 보로스, 베를린
사진에 관하여, 갤러리 수잔 오테센, 코펜하겐
- 2016 지금, 노이게림슈나이더, 베를린
메이킹 & 언메이킹, 캄든아트센터, 런던
리드쇠핑 미술 협회 80주년 기념전, 리드쇠핑, 스웨덴
스웨덴 미술: 지금!, 스벤-해리 콘스트뮤지엄, 스톡홀름
- 2015 스텐 에이 올슨 재단 전시, 예테보리 미술관, 예테보리, 스웨덴
초록을 향하여, 메종 루이 카레, 바조슈-쉬흐-귀온느, 프랑스
갤러리 아른스테트, 외스트라 카르프, 스웨덴
20주년 기념전, 스티븐 프리드먼 갤러리, 런던
- 2014 자연을 통하여 - 대략적 지침서, 스테너센 박물관, 오슬로
회화에 대한 욕망: 현대 회화 2000-2014, 오슬로 국립미술관, 오슬로
회귀의 시간, 조머 & 쿨, 베를린
- 2013 아마존 아래에는 강이 흐른다, 프락 오베르뉴, 클레르몽페랑, 프랑스
색채가 형상을 만든다 - 미술관 소장품, 북유럽 수채화미술관, 스키르함, 스웨덴
내면 세계, 갤러리 로터, 예테보리, 스웨덴
13은 행운의 숫자다 - 스웨덴 현대미술, 검보스트랜드 콘스트 & 폼, 쇠데르쿨라, 핀란드
- 2012 두 번째 - 나를 사랑한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아모스 앤더슨 미술관, 헬싱키
포맷, 갤러리 수잔 오테센, 코펜하겐
무제의 풍경들, 라우툼 컨템포러리, 오슬로
핑크 캐비아, 루이지아나 미술관, 홈레벡, 덴마크
장소의 영혼, 아티펠라그, 스톡홀름
생각은 물체다, 다멜리오 갤러리, 뉴욕
제 30회 상파울루 비엔날레 - 시학의 목전, 이비라푸에라 공원, 상파울루, 브라질
식물의 밝은 폭풍우의 안이다, 발레리-라르보 문화 센터, 비시, 프랑스
- 2011 퍼스트 드롭, 갤러리 리스, 스톡홀름

- 2010 현대미술전 2010, 스톡홀름 현대미술관, 스톡홀름
회화: 여정 그리고 확장 - 1950년대부터 오늘까지, 루드비히 재단 현대미술관(mumok), 빈
- 2009 멀고도 가까운 - 현대미술 속 자연, 본 미술관, 본, 독일
삶의 유형들, 보니어스 콘스트할, 스톡홀름
특혜 받는 국가들 - 모멘텀 제 5 회 북유럽 현대미술 비엔날레, 모멘텀 콘스트할 & 갤러리 F15, 모스, 노르웨이
숨 안의 막대기, 갤러리 리스, 오슬로
- 2008 그들은 미래를 거꾸로 말했다, 내셔널뮤지엄, 라바펠드, 베를린
- 2007 빌드마크 - 현대미술관 c/o 스메디에바켄, 스톡홀름 현대미술관, 스톡홀름
나는 말뱀을 사랑한다, 쿤치 현대미술관, 바사, 핀란드
- 2006 유일한 색, 예테보리 미술관, 예테보리, 스웨덴
현대미술전 2006, 스톡홀름 현대미술관, 스톡홀름
- 2004 장소의 본성, 예블레 아트센터, 예블레, 스웨덴
VIDA 뮤지엄 & 콘스트할, 윌란드, 스웨덴
세 명의 화가, NO.5 베르겐 콘스트할, 베르겐, 노르웨이
- 2003 컬렉션 - 현대미술을 중심으로, 둔케르 문화센터, 헬싱보리, 스웨덴
스웨덴 현대미술, 유럽중앙은행,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독일
생태 윤리, 폴투스크, 폴란드
- 2002 위험한 만남 - 타인과 마주하다, 폴투스크, 폴란드
3/3, 갤러리 플래치, 스톡홀름
어전트 페인팅, 파리 시립 근대 미술관, 파리
잠시 멈추어, 있어야 할 곳으로서의 회화, 예블레 아트센터, 예블레, 스웨덴
- 2001 누가 빨강, 파랑, 노랑을 두려워 하는가?, 릴리에발크 콘스트할, 스톡홀름
현지에서, 포스박카 부록, 예블레, 스웨덴
올레 베어틀링: 회고전, 킬 미술관, 킬, 독일

프로젝트

- 2017 카롤린스카 신축 대학 병원 공공미술위원회, 솔나, 스웨덴
- 2013 안드레아스 에릭슨, 브로어 호스의 집 비디오들 (비디오), 읍살라, 스웨덴

수상

- 2015 스텐 에이 올슨 재단 문화 장학금(예술가 부문), 스텐 에이 올슨 재단, 예테보리, 스웨덴
- 2007 발로아즈 예술상(아트 스테이트먼트), 아트바젤, 바젤, 스위스

전시 도록

- 2019 『안드레아스 에릭슨. 하이 앤 로우, 인-비트윈스』. 서울: 학고재, 2019
『안드레아스 에릭슨. 컷아웃, 시행착오와 실들』. 쾰른: 브라운스펠더, 2019.
- 2018 『원숭이와 폭포 - 우리 기후의 모습』. 탐페레: 사라 힐덴 미술관, 2018.
『안드레아스 에릭슨. 학교 과제』. 런던: 스티븐 프리드먼 갤러리, 2018.
『우거진 선들, 환영의 형상』. 뭉바이: 갤러리 이사, 2018.
- 2017 『보로스 컬렉션/벵커 베를린 #3』. 베를린: 디스탄츠 출판사, 2017.
- 2015 『20』. 런던: 스티븐 프리드먼 갤러리, 2015.

이미지 사용 시 아래 저작권 표시 부탁드립니다.

All images: ©Andreas Eriksson. Courtesy the artist and neugerriemschneider, Berlin

- 2014 『안드레아스 에릭슨. 라운드어바웃』. 스톡홀름: 보니어스 콘스트할, 2014.
『안드레아스 에릭슨』. 런던: 스티븐 프리드먼 갤러리, 2014.
- 2013 『난점』. 리드쇠핑: 리드쇠핑 콘스트할, 2013.
『회상』. 할레시스: 블라 힘멜, 2013.
『풍경 (카르발에게)』. 스톡홀름: 갤러리 리스, 2013.
- 2011 『하이, 로우 & 인 비트윈』. 할레시스: 블라 힘멜, 2011.
『안드레아스 에릭슨, 제 54 회 베니스비엔날레 (북유럽관)』. 스톡홀름: 스톡홀름 현대미술관; 베를린: 스텐버그 프레스, 2011.
- 2010 『현대미술전 2010』. 스톡홀름: 스톡홀름 현대미술관, 2010.
에델베르트 코브·레이너 푸쉬스·가브리엘 허브만(편). 『회화: 여정 그리고 확장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빈: 루드비히 재단 현대미술관(mumok), 2010.
- 2008 안드레아스 에릭슨·마틴 트란더(편). 『개와 산책하기 - 소파에 누워서』. 빈: 루드비히 재단 현대미술관(mumok), 2008.
- 2007 『라운드 어바웃 더 파이프라인 트리』. 아스트라 제네카, 2007.
- 2006 『코시모』. 세브데: 세브데 콘스트할, 2006.
- 2004 『익스포지션 - 페리페티』. 스톡홀름: 블라 힘멜 폴라그, 2004.
『360』. 코펜하겐: 블라 힘멜 폴라그, 2004.
- 2003 『두 번째』. 코펜하겐: 블라 힘멜 폴라그, 2003.
- 2001 안드레아스 에릭슨 외 3 인(편). 『올레 베어틀링: 회고전』. 쾰: 쾰 미술관, 2001.

도서

- 2019 토드 브레디·베리 슈와브스키(편). 『오늘의 풍경화 - 팝 추상에서 신낭만주의까지』. 런던: 탬즈 & 허드슨, 2019.
- 2018 『무단 결석』. 런던: 스티븐 프리드먼 갤러리, 2018.
알리다 이바노브(편). 『안드레아스 에릭슨 회화 2014-18』. 런던: 스티븐 프리드먼 갤러리; 베를린: 노이게림슈나이더, 2018.
- 2017 안드레아스 에릭슨. 『리단』. 리드쇠핑: 스트로커크 랜드스툼 AB, 2017.
안드레아스 에릭슨. 『컬루어링 북』. 리드쇠핑: 스트로커크 랜드스툼 AB, 2017.
- 2016 『할레시스 스콜라』. 스톡홀름: 워드 & 오브젝트, 2016.
한스 디켈. 『현대미술 속 자연 - 풍경과 물질적 미학을 뛰어넘는 별자리』. 뮌헨: 베어라그 실케 슈라이버, 2016.
- 2015 『헬랑겐』. 스톡홀름: 워드 & 오브젝트, 2015.
- 2002 『거꾸로 가는 계절 또는 가짜 호수』. 코펜하겐: 블라 힘멜 폴라그, 2002.
- 1999 『블라 힘멜』. 코펜하겐: 블라 힘멜 폴라그, 1999.
- 1996 『플라더머스프로젝테트』. 코펜하겐: 블라 힘멜 폴라그, 1996.

기사

- 2015 힐라리에 쉬츠. 「안드레아스 에릭슨」. 엘르 데코, 2015. 5, pp. 112-114.
- 2014 필리파 라모스. 「보니어스 콘스트할의 안드레아스 에릭슨」. 프리즈 매거진, 2014. 4. 4.
- 2009 도미니쿠스 뮐러. 「콘스트런드강」. 타츠 디 타게스자이퉁, 2009. 5. 27.

Andreas Eriksson

Hakgojae Gallery | *High and Low*

Hakgojae Cheongdam | *In-betweenes*



Seoraksan

2019

Oil, acrylic, egg-oil tempera on
canvas

130x80cm

Photo©Studio Andreas Eriksson

Exhibition title : **Andreas Eriksson**

Hakgojae Gallery | *High and Low*

Hakgojae Cheongdam | *In-betweenes*

Exhibition Dates: September 20th (Fri) – November 3rd (Sun), 2019

Exhibition Venue: Hakgojae Gallery

Hakgojae Cheongdam

Inquiry : Hakgojae Gallery | +82-2-720-1524~6

Hakgojae Cheongdam | +82-2-3448-4575~6

Artworks: 45 works in total

Hakgojae Gallery | 27 works

6 Paintings, 15 Sculptures, 1 tapestry

Hakgojae Cheongdam | 15 Paintings

Contact: Hakgojae Gallery | Miran Park, miran@hakgojae.com

Hakgojae Cheongdam | Jennifer Lee, jen.lee@hakgojae.com

1. Exhibition Summary

Hakgojae Gallery and Hakgojae Cheongdam proudly present works by **Andreas Eriksson** (b. 1975, Björsäter, Sweden) on view from September 20th to November 3rd, 2019. Eriksson represented the Nordic Pavilion at the 54th Venice Biennale and was praised internationally through his presentation of a variety of works, including a large-scale painting of a tree trunk and sculptures. In 2007, he received the Baloise Art Prize (Art Basel, Basel, Switzerland). This exhibition is Andreas Eriksson's first solo show in Asia. Hakgojae Gallery presents a comprehensive overview of the artist's works including paintings, sculptures, prints, and tapestry, under the title, *High and Low*, while Hakgojae Cheongdam intensively illuminates Eriksson's painting series under the title, *In-betweenes*.

2. Exhibition Themes

Andreas Eriksson's First Solo Exhibition in Asia, Taking place in Both Hakgojae Gallery and Hakgojae Cheongdam

This exhibition is Andreas Eriksson's first solo show in Asia and is held at both Hakgojae Gallery and Hakgojae Cheongdam. The exhibition in Hakgojae Gallery under the title, *High and Low*, is a chance to view a comprehensive overview of the artist's expansive oeuvre in one place. The exhibition extends its significance by presenting the artist's series of large-scale painting which refers in their titles to Korean landscapes such as *Semaphore Jirisan* (2019), *Seoraksan* (2019), and *Han* (2017). Along with the paintings, *Weissensee no6* (2019), a large hand-woven tapestry is presented in this exhibition, indicating the artist's dedication to continue working with weaving since 2015. To further expand the range of the exhibition, prints including screen prints and etching, and bronze cast sculptures of which examples were exhibited in the Nordic Pavilion at the 54th Venice Biennale are also presented. A series of paintings titled, *Ephemeral*, is on view at Hakgojae Cheongdam under the title, *In-Betweens*. In this series, forms and empty spaces balance with each other in both inside and outside of the canvas and emanate unique sentiments.

The Universal Truth Discovered from Nature – the Harmony of Yin and Yang, and the Aesthetic of Chance

Andreas Eriksson lives on the Mt. Kinnekulle in Southern, Sweden since the early 2000s. Small events and phenomena from his everyday life and the natural world that surrounds him are the basis for his works. Eriksson's oeuvre is highly expansive. Beginning from painting, he expands his works into sculpture, print, weavings and works on paper. His works hover enigmatically between the abstract and the figurative and generate an exquisite aesthetic. They often appear to be quiet and understated, yet the connoted poetic narrative and hidden significance present a long-lasting effect. Even with his use of diverse materials and methods, his works are all intimately connected to each other.

Eriksson's works embrace dualities such as inside and outside, lightness and heaviness, illusion and reality, and emphasize the aesthetic of chance. One could see in his works attributes of Eastern philosophy, which emphasizes the harmony of yin and yang, however his work is very much rooted in his Scandinavian surroundings. Eriksson perceives nature as a neutral entity, both very precise yet coincidental. His methods frequently involve the embrace of chance, such as utilizing stains and spills. This feature is well shown in *Lervia* (2016), a series of etchings on view at Hakgojae Gallery, Space 1. The artist poured a mixture of acid and honey on the copperplate and used an electric fan, 'Lervia' to dry the mixture, eroding away its traces, creating abstract and poetic black and white forms in various tones on the picture screen.

■ Please indicate the copyright below when using images.

All images:

©Andreas Eriksson

Courtesy the artist and neugerriemschneider, Berlin

3. Work Introduction

Representational Works



Semaphore Jirisan

2019

Oil, acrylic, egg-oil tempera on canvas
195x240cm

Photo©Studio Andreas Eriksson



Ephemeral #16

2019

Oil, acrylic and egg-oil tempera on panel
mounted canvas
38x33cm

Photo©Studio Andreas Eriksson

Painting is both subject and method for Andreas Eriksson. It is the base for different mediums and is the source of metaphorical and conceptual content in his work. Eriksson's paintings are abstract yet solid. His large-scale paintings suggest something of an aerial view; the flexible movement of curves is reminiscent of contours of a map. Eriksson's paintings, which are titled after Korean landscapes such as *Semaphore Jirisan* (2019), are on view at Hakgojae Gallery, Space 1. Eriksson's works are abstract paintings that do not represent actual landscapes but relate to structures and colours in nature and landscapes. The *Semaphore* series such as *Semaphore Jirisan* (2019), *Semaphore Hallasan* (2019), and *Semaphore Gariwangsan* (2019) are paintings that started from a single drawing, which is why the artist chose to use identical size and format for the series. Each painting developed by referring to and keeping an intimate relationship with one another.

The new series of paintings entitled *Ephemeral* is on view at Hakgojae Cheongdam. Sara Walker, who wrote the introductory essay for this exhibition, said that Eriksson's small-scale paintings are "like the taming of nature into a garden."



Weissensee no6

2019

Linen
240x200cm

Photo©Studio Andreas Eriksson

Weissensee no6 (2019) is a tapestry hand-woven using unprocessed linen fiber. The landscape becomes the subject as well as the material in this work. Eriksson collects linen threads from various locations in Sweden. The threads slightly differ in color, depending on their origin. While some of the linen he uses are contemporary, others may be over 100 years old, acquired from families who have been weaving for generations using local thread.

Eriksson uses unprocessed linen, undyed, and untreated. The colors are formed naturally, depending on the soil, point in time, location, and

■ Please indicate the copyright below when using images.

All images:

©Andreas Eriksson

Courtesy the artist and neugerriemschneider, Berlin

climate the plant grew in. To tie the work further to a sense of place, he denotes the location of production in the title of the work. The artist composes his picture screen through 'mapping' the various passages from his oil paintings into a pattern that guides the weaving. Eriksson uses a method in place since prehistoric times in which each line of weft is positioned and adjusted by hand, allowing a delicate shift in pressure and texture. This process is meticulous and extremely labor-intensive.



Sketch for unfinished painting

2017

Screen print on plastic

73.7x103.7cm x8

Photo©Jens Ziehe, Berlin

Entering the inner room in Hakgojae Gallery, Space 1, the screen print series including *Sketch for unfinished painting* (2017) captivates the eye. The works are black and white screen prints composed of multiple panels. The grid-like form derives from the large windows in the artist's studio. This is an attempt to imply the connection between the exterior and interior of the space. Eriksson forms map-like images by extracting the contour lines from his recent abstract paintings. This attempt is a part of the artist's aesthetic exploration of line and form, and the composition of the picture screen.



Content is a Glimpse 85

2019

Cast bronze

32x7x13cm

Photo©Studio Andreas Eriksson

Andreas Eriksson's *Content is a Glimpse 85* (2019) is a delicate bronze cast sculpture. The series is based on the artist's contemplation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nature and civilization, inside and outside. The windows of Eriksson's studio deep in the countryside reflected the surrounding landscapes and created an illusion, and the birds accidentally tried to fly into the windows and died. Eriksson was fascinated with the idea of the border between surface and illusion, and interior and exterior. Moved by the bird's trust believing the illusion to be a reality, Eriksson made a group of casts of the birds that had the same fate. He left the channels through which the bronze was poured to embody the branches in which the birds can rest on, thereby giving the birds a new life.

4. Artist Introduction

Andreas Eriksson was born in Björsäter, Sweden, 1975. Eriksson's interest in art emerged after visiting the Munch Museum in Oslo with his mother. After graduating from Royal College of Arts, Stockholm in 1998, he moved to Berlin, Germany. There, he interacted with many artists and worked diligently, but returned to Sweden to convalesce after he became ill with a syndrome called electromagnetic hyper-sensitivity. He started living on the Mt. Kinnekulle, near Medelplana, Southern Sweden and continues to live there.

After his first solo exhibition in Stockholm in 2001, Eriksson had numerous exhibitions in prestigious art institutions such as Bonniers Konsthall, Stockholm; Reykjavik Art Museum, Reykjavik; Museum Moderner Kunst Stiftung Ludwig Wien (mumok), Vienna; Trondheim Kunstmuseum, Trondheim, Norway. In 2011, Eriksson represented the Nordic Pavilion at the 54th Venice Biennale. He also participated in multiple group exhibitions at institutions including Musée d'Art Moderne de la Ville de Paris, Paris; Moderna Museet, Stockholm; National Museum of Art, Architecture and Design; Oslo, etc. Andreas Eriksson received the Baloise Art Prize (Art Basel, Basel, Switzerland) in 2007, and Sten A Olssons Kulturstipendium (Konstnären) (Sten A Olssons Foundation, Gothenburg, Sweden) in 2015. His works are included in prominent collections internationally including Centre Pompidou (Paris), Museum Moderner Kunst Stiftung Ludwig Wien (mumok) (Vienna), Göteborg Konstmuseum (Gothenburg, Sweden), etc.

5. Essay

***The author's agreement is required when using more than 4 words from the essay.
Please contact Hakgojae Gallery for assistance.**

Landscape into Art

Sara Walker

I became friends with Andreas Eriksson in a stone quarry. The quarry contained different coloured limestones, specific to the region. The days in the quarry were warm and we broke larger slabs into smaller pieces to use for a low stone wall which we built in front of Eriksson's house. The quarry was vast, and the colour shifts were beautiful. I vividly remember the two brothers who ran the stone quarry. These men were constantly covered in dust, making them look like two classical sculptures. What was truly striking was that their eyes were ice blue. I think of this in relation to Eriksson's paintings. The sudden burst of bright colour colliding with a discreet hue of light brown. And how this contrast creates a new colour, perhaps only optically.

■ Please indicate the copyright below when using images.

All images:

©Andreas Eriksson

Courtesy the artist and neugerriemschneider, Berlin

I have given this short essay the title *Landscape into Art*. I'm not going to be ashamed of using Sir Kenneth Clark's book title from 1949 as a starting point in a text about the artist Andreas Eriksson. (There will be other archaic references in this miniature essay.) There is something timeless in the works by Eriksson.

We are surrounded by things not made by us, to paraphrase Clark, a life and structure different from us. Formations of clouds, trees and colours. Through these natural vistas we are entwined with ideas of nature, art and beauty. What does Andreas Eriksson portray?

The painter Corot named some of his small landscape paintings *Études*, perhaps connecting them to the musical *Études* by Chopin. Eriksson's small-format paintings exude Corot's notion of a freedom of working with an aesthetic painterly departure, Corot could abandon thoughts of artistic truths and instead convey a sensation. Eriksson's paintings, both small and large, seem to start nowhere and end nowhere, yet they are solid. The boundary of the small-format paintings is like the taming of nature into a garden. The large paintings suggest something of an aerial view. The viewpoint widened, a map of something not yet known. To look at painting doesn't have to be a guessing game. The artist's intentions are there on the canvas for everyone to see. Stare. Become acquainted with this particular painterly language.

Writing this, I am observing two birds busy building a nest underneath a tiled roof situated directly opposite the entrance to our summer house. The man-made structure serves a purpose for the nesting birds. The architecture mimics a crevice. The safety is just an illusion though. We enter and exit the house many times a day and each time the soon-to-be parents flee. The nest is coming along nicely despite this. It looks like it is made by a human being trying to create the most rustic little sculpture. We truly are surrounded by things not made by us. And so are the birds. Andreas Eriksson's bird sculptures are related to the nesting birds. The birds-cum-sculpture died when crashing into the glass doors and windows of Eriksson's studio. The illusion of air materialized in glass left a number of birds dead. Studio windows are made to let the light in and in the case of a studio in the countryside, to create a minimum of interruption between the outside and inside. The relation between nature and civilization is incorporated in these bronze birds. They died and Eriksson resurrected them as classic bronze sculptures. Almost like martyrs.

John Ruskin wrote: "To compose is to arrange unequal things". The sense of inequality comes to mind when thinking of Eriksson's molehills. The molehills are actual molehills. Collected by Eriksson in a plaster cast and then cast in bronze. These sculptures are small mountains of both victory and defeat. The moles always win the battle of the lawn. The underground burrows dug by the moles make an intricate system, the movement brings to mind river meanders. Eriksson paintings are related to what the moles dig, he too wanders. The molehill sculptures can also be interpreted as a celebration of stubbornness. The need to continuously make art. The molehills placed on the floor contain different notions: they are unwanted in gardens, but they have been given

■ Please indicate the copyright below when using images.

All images:

©Andreas Eriksson

Courtesy the artist and neugerriemschneider, Berlin

a new status by the artist and their labors have become defiant objects on the gallery floor. Low-status dirt given an eternal corpus.

Eriksson is not interested in creating a division between the works in his installations. The difference in material characteristics is not an element used to make us believe there are a multitude of stories in the room. It is quite the opposite, Eriksson acknowledges the material divide between tapestries and molehills, the paintings and prints and urges us to meditate over the closeness between the works in terms of ideas. All of his works speak the same language. They speak of the haphazardness of life and art, how everything is connected through relationships of light and darkness, but also of chance. The artist's role of organizing and re-organizing the sublime is evident in the tapestries. These complex works expose all aspects of form, the topography and structure seem to be able to be everything at once, both subtle and crude. The material itself, the linen, is directly linked to the classic canvas of a painting but in the tapestries the linen itself speaks rather than being the silent foundation for expression. The large paintings have been through a process of a painterly game of whispers whereas one drawing has been continuously used from beginning to end in the series of paintings. With each painting, the look of the original is reduced. The birth of something new. Even the death of the birds gives birth to something new. New and eternal simultaneously. Eriksson uses the artistic language he has learned and developed but he also tries to pry it open, his eyes wide open when looking for connections and new relationships between the different characters in this physical, continuous chronicle.

6. CV

Andreas Eriksson

1975 Born in Björsäter, Sweden
1993-98 Royal College of Arts, Stockholm
Lives and works in Medelplana, Sweden

Solo Exhibitions

- 2019 **High and Low, Hakgojae Gallery, Seoul**
In-betweens, Hakgojae Cheongdam, Seoul
Cutouts, Mistakes and Threads, Braunsfelder, Cologne, Germany
- 2018 Kria, Stephen Friedman Gallery, London
- 2017 Work in Progress, Skissernas Museum, Lund, Sweden
Mapping, neugerriemschneider, Berlin
- 2016 Röta, bråka, skäkta och häckla, Stephen Friedman Gallery, London
- 2015 Meanderbilder, Galleri Riis, Stockholm
Erosion, Kunstforum Baloise, Basel, Switzerland
Walking the Dog – Sitting at the Loom, Sommer & Kohl, Berlin
- 2014 Roundabouts, Bonniers Konsthall, Stockholm

■ Please indicate the copyright below when using images.

All images:

©Andreas Eriksson

Courtesy the artist and neugerriemschneider, Berlin

-
- Roundabouts, Trondheim Kunstmuseum, Trondheim, Norway
 Roundabouts, Centre PasquArt, Biel, Switzerland
 Roundabouts, Reykjavik Art Museum, Reykjavik
 Klotz, Sommer & Kohl, Berlin
 Resonant, Galleri Susanne Ottesen, Copenhagen
 Sken, Galleri Arnstedt, Båstad, Sweden
 2013 Recur, Bror Hjorths Hus, Uppsala, Sweden
 Krux, Lidköpings Konsthall, Lidköping, Sweden
 Landskap (till Kjarval), Galleri Riis, Oslo
 Coincidental Mapping, Stephen Friedman Gallery, London
 Recur, Galleri Riis, Oslo
 First Snow in Ibirapuera, Sommer & Kohl, Berlin
 Levitation. Andreas Eriksson and Michel Majerus, Michel Majerus Estate, Berlin
 2012 Expedition, Galleri Riis, Oslo
 2011 54th Venice Biennale (Nordic Pavilion), Giardini di Castello, Venice, Italy
 Inbetweens, Sommer & Kohl, Berlin
 Untitled and Other Activities, Galleri Riis, Stockholm
 2010 Galleri Box, Gothenburg, Sweden
 High, Low & In Between, Galleri Susanne Ottesen, Copenhagen
 2009 Arnstedt & Kullgren, Östra Karup, Sweden
 keinen blassen Schimmer, Sommer & Kohl, Berlin
 Roundabout the Hardship of Believing, Galleri Riis, Oslo
 2008 Content is a Glimpse, Galerie Conrads, Dusseldorf, Germany
 Walking the Dog – Lying on the Sofa, Museum Moderner Kunst Stiftung Ludwig Wien (mumok), Vienna
 2007 Promenad, Galleri Andersson/Sandström, Umeå, Sweden
 2006 Cosimo, Skövde Konsthall, Skövde, Sweden
 Galleri Riis, Oslo
 2005 Exposition – Peripeti, Galleri Flach, Stockholm
 360, Trondheim Kunstmuseum, Trondheim, Norway
 2004 360, Galleri Andersson/Sandström, Umeå, Sweden
 Exposition – Peripeti, Galleri Magnus Åklundh, Malmö, Sweden
 Exposition – Peripeti, Kristianstads Konstmuseum, Kristianstad, Sweden
 360, Västerås Konstmuseum, Västerås, Sweden
 Exposition – Peripeti, Galleri Riis, Oslo
 360, Nordic Watercolour Museum, Skärhamn, Sweden
 2003 A Second Time, Galleri Flach, Stockholm
 Interspectives, Galleri Veggerby, Copenhagen
 2001 Screensaver, Statens Konstråds Galleri, Stockholm

Group Exhibitions

- 2019 Holz, Metall, Gewebe, Farbe, Glas, Ton, Stein, neugerriemschneider, Berlin
 Double Game – FRAC Auvergne Collection, Museum of Art and Archaeology of Aurillac, Aurillac, France
 2018 New Materialism, Bonniers Konsthall, Stockholm
 Biennial of Painting – On Landscapes, Roger Raveelmuseum, Machelen, Belgium

■ Please indicate the copyright below when using images.

All images:

©Andreas Eriksson

Courtesy the artist and neugerriemschneider, Berlin

-
- 2017 Monkey and Waterfall – Pictures of Our Climate, Sara Hildén Art Museum, Tampere, Finland
New Works, Galleri Susanne Ottesen, Copenhagen
Multiple, Stephen Friedman Gallery, London
NATURE – Home & Workplace, Johannes Larsen Museum, Kerteminde, Denmark
Lush Strokes, Phantom Forms, Galerie Isa, Mumbai, India
- 2016 Summer Days, Serlachius Museum Gösta, Mänttä, Finland
Boros Collection/Bunker Berlin #3, Sammlung Boros, Berlin
On Photography, Galleri Susanne Ottesen, Copenhagen
- 2015 Presently, neugerriemschneider, Berlin
Making & Unmaking, Camden Arts Centre, London
80th Anniversary Exhibition of Lidköping Art Society, Lidköping, Sweden
Swedish Art: Now!, Sven-Harrys Konstmuseum, Stockholm
- 2014 Sten A Olsson Foundation Exhibition, Göteborg Konstmuseum, Gothenburg, Sweden
Mise au Vert, Maison Louis Carré, Bazoches-sur-Guyonne, France
Galleri Arnstedt, Östra Karup, Sweden
Twentieth Anniversary Exhibition, Stephen Friedman Gallery, London
- 2013 Through Nature – A Rough Guide, Stenersen Museum, Oslo
An Appetite for Painting: Contemporary Painting 2000–2014, National Museum of Art, Architecture and Design, Oslo
Le Temps de la Rentrée, Sommer & Kohl, Berlin
- 2012 Sous l'Amazone coule un fleuve, FRAC Auvergne, Clermont-Ferrand, France
Colour Shapes Figures – The Museum Collection, Nordiska Akvarellmuseet, Skärhamn, Sweden
Inner Realms, Galleri Rotor, Gothenburg, Sweden
13 är ett lyckotal – Samtidskonst från Sverige, Gumbostrand Konst & Form, Söderkulla, Finland
- 2011 A Second Time – Loves Me, Loves Me Not, Amos Anderson Art museum, Helsinki
Format, Galleri Susanne Ottesen, Copenhagen
Untitled Landscapes, Lautom Contemporary, Oslo
Pink Caviar, Louisiana Museum of Modern Art, Humlebaek, Denmark
Platsens själ, Artipelag, Stockholm
Idea is the Object, D'Amelio Gallery, New York
30th São Paulo Biennial – The Imminence of Poetics, Ibirapuera Park, São Paulo, Brazil
Dehors la flore est à l'orage, Valery-Larbaud Cultural Centre, Vichy, France
- 2010 First Drop, Galleri Riis, Stockholm
- 2009 The Moderna Exhibition 2010, Moderna Museet, Stockholm
Painting: Process and Expansion – From the 1950s till Now, Museum Moderner Kunst Stiftung Ludwig Wien (mumok), Vienna
- 2008 Remote Proximity – Nature in Contemporary Art, Kunstmuseum Bonn, Bonn, Germany
Life Forms, Bonniers Konsthall, Stockholm
Favoured Nations – Momentum 5th Nordic Biennale of Contemporary Art, Momentum Konsthall & Galleri F15, Moss, Norway
Latte in Watte, Galleri Riis, Oslo
- 2007 They Told the Future Backwards, Nationalmuseum, Lavafeld, Berlin
- 2006 Vildmark – Moderna Museet c/o Smedjebacken, Moderna Museet, Stockholm
I Love Malmö, Kuntsi Museum of Modern Art, Vaasa, Finland
- 2006 Bara Färg, Göteborg Konstmuseum, Gothenburg, Sweden
The Moderna Exhibition 2006, Moderna Museet, Stockholm

-
- 2004 The Nature of Site, Gävle Konstcentrum, Gävle, Sweden
VIDA Museum & Konsthall, Öland, Sweden
Tre Malere, NO.5 Bergen Kunsthall, Bergen, Norway
- 2003 Collection – Contemporary Art in Focus, Dunkers Kulturhus, Helsingborg, Sweden
Contemporary art from Sweden, European Central Bank, Frankfurt/Main, Germany
The Ethics of Ecology, Pultusk, Poland
- 2002 Dangerous Encounters – Facing the Others, Pultusk, Poland
3/3, Galleri Flach, Stockholm
Urgent Painting, Musée d'Art moderne de la Ville de Paris, Paris
Stop for a moment, painting as a place to be, Gävle Konstcentrum, Gävle, Sweden
- 2001 Who is afraid of red, blue and yellow?, Liljevalchs Konsthall, Stockholm
On Location, Forsbacka bruk, Gävle, Sweden
Olle Baertling: Retrospektive, Kunsthalle zu Kiel, Kiel, Germany

Projects

- 2017 Public Art Commission at New Karolinska University Hospital, Solna, Sweden
2013 Andreas Eriksson, Bror Hjorths Hus Videos (video), Uppsala, Sweden

Awards

- 2015 Sten A Olssons Kulturstipendium (Konstnären), Sten A Olssons Foundation, Gothenburg, Sweden
2007 Baloise Art Prize (Art Statements), Art Basel, Basel, Switzerland

Exhibition Catalogues

- 2019 *Andreas Eriksson. High and Low, In-betweeners.* Exh. cat. Seoul: Hakgojae Gallery, 2019.
Andreas Eriksson. Cutouts, Mistakes and Threads. Exh. cat. Cologne: Braunsfelder, 2019.
- 2018 *Monkey and Waterfall – Pictures of Our Climate.* Exh. cat. Tampere: Sara Hildén Art Museum, 2018.
Andreas Eriksson. Kria (School Assignment). Exh. cat. London: Stephen Friedman Gallery, 2018.
Lush Strokes, Phantom Forms. Exh. cat. Mumbai: Galerie Isa, 2018.
- 2017 *Boros Collection/Bunker Berlin #3.* Exh. cat. Berlin: Distanz Verlag, 2017.
- 2015 *20.* Exh. cat. London: Stephen Friedman Gallery, 2015.
- 2014 *Andreas Eriksson. Roundabouts.* Exh. cat. Stockholm: Bonniers Konsthall, 2014.
Andreas Eriksson. Exh. cat. London: Stephen Friedman Gallery, 2014.
- 2013 *Krux.* Exh. cat. Lidköping: Lidköpings Konsthall, 2013.
Recur. Exh. cat. Hällekis: Blå himmel, 2013.
Landskap (till Kjarvil). Exh. cat. Stockholm: Galleri Riis, 2013.
- 2011 *High, Low & in Between.* Exh. cat. Hällekis: Blå himmel, 2011.
Andreas Eriksson, 54th Venice Biennale (Nordic Pavilion). Exh. cat. Stockholm: Moderna Museet; Berlin: Sternberg Press, 2011.
- 2010 *The Moderna Exhibition 2010.* Exh. cat. Stockholm: Moderna Museet, 2010.
Köb, Edelbert, Rainer Fuchs and Gabriel Hubmann (Eds.). *Painting: Process and Expansion – From the 1950s till Now.* Exh. cat. Vienna: Museum Moderner Kunst Stiftung Ludwig Wien (mumok), 2010.
- 2008 Eriksson, Andreas, Martin Thelander (Eds.). *Walking the Dog – Lying on the Sofa.* Exh. cat. Vienna: Museum Moderner Kunst Stiftung Ludwig Wien (mumok), 2008.
- 2007 *Round About the Pipeline Tree.* Exh. cat. Astra Zeneca, 2007.
- 2006 *Cosimo.* Exh. cat. Skövde: Skövde Konsthall, 2006.

■ Please indicate the copyright below when using images.

All images:

©Andreas Eriksson

Courtesy the artist and neugerriemschneider, Berlin

-
- 2004 *Exposition – Peripeti*. Exh. cat. Stockholm: Blå himmel Förlag, 2004.
360. Exh. cat. Copenhagen: Blå Himmel Förlag, 2004.
- 2003 *A Second Time*. Exh. cat. Copenhagen: Blå Himmel Förlag, 2003.
- 2001 Eriksson, Andreas, and others (Eds.). *Olle Baertling: Retrospektive*. Exh. cat. Kiel: Kunsthalle zu Kiel, 2001.

Books

- 2019 Bradway, Todd, Barry Schwabsky (Eds.). *Landscape Painting Now – From Pop Abstraction to New Romanticism*. London: Thames & Hudson, 2019.
- 2018 *Skolk*. London: Stephen Friedman Gallery, 2018.
Ivanov, Alida (Ed.). *Andreas Eriksson. Paintings 2014-18*. London: Stephen Friedman Gallery; Berlin: neugerriemschneider, 2018.
- 2017 Eriksson, Andreas. *Lidan*. Lidköping: Strokirk-Landströms AB, 2017.
Eriksson, Andreas. *Colouring Book*. Lidköping: Strokirk Landströms AB, 2017.
- 2016 *Hällekis skola*. Stockholm: Word & Object, 2016.
Dickel, Hans. *Natur in der zeitgenössischen Kunst – Konstellationen jenseits von Landschaft und Materialästhetik*. Munich: Verlag Silke Schreiber, 2016.
- 2015 *Hälängen*. Stockholm: Word & Object, 2015.
- 2002 *The Seasons Reverse or Fake Lake*. Copenhagen: Blå Himmel Förlag, 2002.
- 1999 *Blå Himmel*. Copenhagen: Blå Himmel Förlag, 1999.
- 1996 *Fladdermusprojektet*. Copenhagen: Blå Himmel Förlag, 1996.

Articles

- 2015 Sheets, Hilarie. "Andreas Eriksson". *Elle Decor*, May 2015: pp. 112-114.
- 2014 Ramos, Filipa. "Andreas Eriksson at Bonniers Konsthall". *Frieze Magazine*, April 14, 2014.
- 2009 Müller, Dominikus. "Kunstrundgang". *taz die tageszeitung*, May 27, 2009.